

창립: 1991. 12. 29.

제32-09 2023. 02. 26.

##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데 있습니다.

### 월 행사 안내

2월 22일(수)  
제30기 제자훈련반 &  
제5기 바이블키 개강예배

2월 26일(주일)  
성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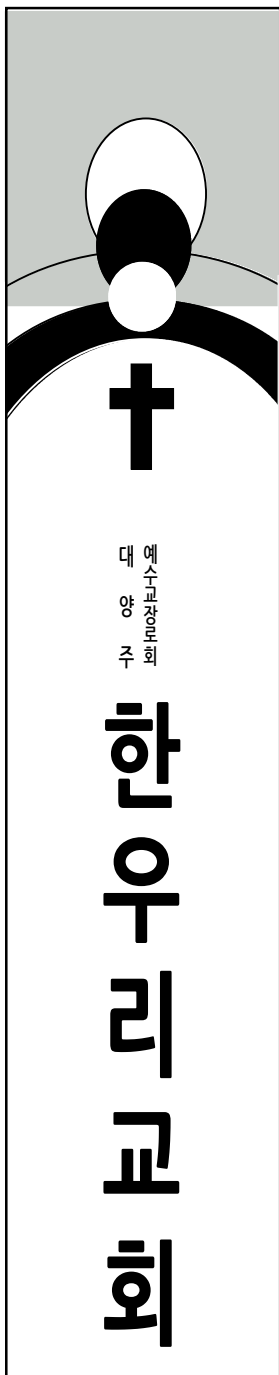
3월 1일(수)  
교육부서 수요모임 '토브' 개강

3월 19일(주일)  
정기제직회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 주일에배

##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안현수 2부/최영두 3부/김진영 4부/나하영

- 예배부름 ..... 사 회 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 다 함 께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 봉헌 및 ..... 1부/ 임상규 장로 2부/ 고현숙 권사 3부/ 손보영 장로 .....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 대상 4:9-10 ..... 사 회 자
  - 찬 양 ..... 2부: 내 마음속의 한 노래 ..... 시온찬양대  
 ..... 3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씬 ..... 그 풍성한 삶 시리즈 8 ..... 남우택 목사  
 .....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 성 찬 ..... 다 함 께
  - 찬 양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 다 함 께  
 ..... 샘물과 같은 보혈은 ..... 다 함 께  
 .....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 축 도 ..... 설 교 자
-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 다 함 께
  - 봉헌 및 ..... 조 용 범  
 대표기도
  - 말 씬 ..... 창 8:18-22 ..... 김진영 목사
  - 성 찬 ..... 그래 예배가 먼저야! ..... 다 함 께
  - 축 도 .....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조기동 장로 2부/ 김인배 장로 3부/ 구옥이 권사 4부/ 이봄이 청년

#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발리단기선교보고

말씀: 엡 1:3-4

제목: 선택,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기도: 박경남 집사 (다음 주 기도: 김태성 집사)

설교: 이성민 목사

# 교회소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교회알림

-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접견실에서 만남이 있습니다.
- 오늘 1-4부 예배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 성찬위원 명단: 김승기 김영현 김용태  
김인배 김태원 김호준 민봉식 배정석  
손보영 신규식 오�필성 이강용 이광일  
이군식 이상용 이성렬 이정석 임상규  
조기동 조종면 형재홍 최병한
- 오늘 1시 30분에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 목장 소속을 원하는 성도는 교회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사용하셔서 희망목장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신규식 장로 021417756  
이종윤 권사 0210575693
- 목장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월드파키스탄 목장이 분가합니다.  
목자 임명: 임상혁 집사(방진)를 'Central  
오클랜드 목장'의 목자로 임명합니다.  
모임 시간은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 목상교재 '복있는 사람 3/4월호'를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10)
- 교역자 동정:  
이성민 목사(최희구 사모, 모세, 모현)가  
부임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서

- 수요일모임 '토브' 개학: 3월 1일(수)
- 약속의 나라 학부모 간담회:  
2월 26일(주일) 11:20-12:10  
느헤미야 은혜홀

## 전도부

- 이번주일 거리전도는 오후 3시, 브라운스  
베이 비치 중간 부분입니다.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 불신영혼 구원에 동참하실 전도대원을  
모집합니다. 김성국집사: 027 271 4894

월	일	목장 & 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2	19	터키오네시보르 / 캄보디아늘푸른/ 캄보디아바라크
	26	월드파키스탄 / 이리안자야쁘데나
3	5	월드모로코 / 아비가일 / 뽀엘
	12	에벤에셀Mercyships / 태국사랑/ 제주한라
	19	오병이어 / 멜번

## 교우동정

- 출산  
김성중 김효진 가정이 지난 10일에  
득녀하였습니다.  
한상현 김효영 가정이 지난 21일에  
득녀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한 생명시리즈 8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 (대상 4:9-10)

2023.02.26.

설교: 남우택 목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복되고 풍성한 삶이 분명하지만 나 혼자만이라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는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한 삶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1.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10:10, 딤후3:15-17)

2. 아베스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보세요.

3. 아베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 정리해보세요.

4.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내게 특별히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 수리남

“화평을 말씀하시리니 다시 어리석은 데로 돌아가지 말라”

수리남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

방화·상점 약탈도 잇따라

남미 수리남에서 정부의 보조금 폐지 정책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 속에 방화와 상점 약탈 등 불법 행위가 이어졌다. 19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인 텔레수르티버와 AFP·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7일 수도 파라리보에서는 1천여 명의 시민이 정부의 연료 전기료 보조금 감축폐지 정책에 항의하는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천드라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 퇴진 구호를 외치며 도로 곳곳을 점거했다. 일부는 차량에 불을 태우거나 상점에서 물건을 닦는 대로 쓸어가는 등 약탈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54.6%에 달한 연간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정부가 연료와 전기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거나 사실상 없애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른 긴축 재정의 일환이라고 호소하며, 이번 정책으로 연간 약 1천90만 달러(140억 원) 상당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그러나 정부 실정을 국민 고통 분담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수리남 법무부 장관은 “약탈 및 폭력행위 주동자와 가담자 119명을 구금한 상태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체포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 대한민국

“너희는 길에 서서 선한 길을 보고 그리로 가라”

국민 5명 중 4명 ‘교회 불신’...

3년 전보다 10%p 떨어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16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2008년에 처음 시작한 추적 조사연구로 올해 일곱 번째를 맞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1%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조사 결과 한국교회 신뢰도가 3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p 이상 떨어진 셈이다. 이 중 무종교인의 신뢰도는 10.6%로 전체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조사에 참여한 교수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20%의 수치는 한국인 중 개신교인이 차지하는 비율과 거의 같기 때문에 성도들만 교회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해 거의 기대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교회가 대중의 신뢰를 받기 위해 할 일로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55.8%)’이 첫손에 꼽혔다. 이 외에도 ‘봉사 및 구제 활동(17.8%)’, ‘환경, 인사회 참여 활동에 앞서 올바른 도덕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처: 데일리굿뉴스)

## 기 도 문

사랑하는 하나님,

- **[수리남]**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과 어려움을 외면한 정부 간의 충돌로 혼란한 수리남에 은혜를 베푸사, 격양되는 갈등이 또 다른 악을 생산하는 것을 멈추고 원만히 해결되게 하소서.
- **[대한민국]** 생명을 흘려보내야 할 한국교회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며 애절한 마음으로 나오오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살펴 돌이키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여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자체들을 도와주셔서,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